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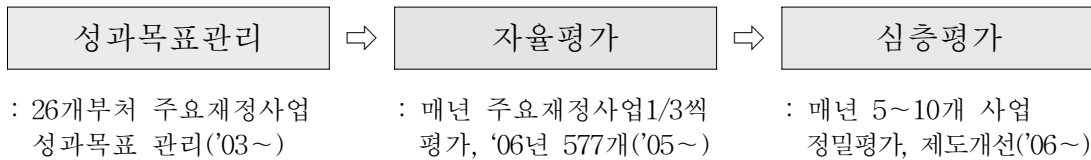
## 부처성과평가 결과의 예산반영 보고

◇ 각 부처의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라는 대통령님 지시('06.8.16)에 따라 '07년 예산에 반영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.

### 1. 재정사업 성과의 예산연계 추진 체계

-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성과와 책임 중심으로 재정이 운용되도록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

<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>



- ('03년) 부처가 성과목표를 관리하는 성과목표관리제도를 도입. 다만, 예산과의 연계방법이 제도화 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
- ('05년~)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부처의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활용하여 재정을 성과중심으로 전환
- ('06년~) 자율평가제도를 보완하여 주요사업에 대하여 정밀평가를 시행하는 심층평가제도를 시행

### 2.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예산편성 활용

- 재정사업자율평가는 미국 PART\* 등 해외사례, 부처·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제도를 '05 도입

\* 미국 PART : '02년 미국 OMB주도로 도입된 제도로서 각 부처가 5년 주기로 모든 사업을 자체평가 → OMB 확인·점검 → 예산편성시 활용

- 재정당국의 평가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1/3씩 자율평가 (3년 주기)
- 재정당국이 자율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예산편성에 활용

□ '07년 예산편성과정에서 평가결과의 예산연계를 대폭 강화

① '07년도 예산편성 지침'에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방침을 명시

< 평가결과와 예산편성 연계 방안 : '07예산편성지침 >

◇ 세출예산 구조조정시 재정사업 자율평가(PART) 결과 성과가 불명확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축소하였는지 점검

- ①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사업은 10% 이상 사업비 삭감
- ②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증액 불가

② '07년 예산편성시 40개 부처 577개 사업(약 35조원)의 자율평가 실시

- 89%는 '보통' 등급 이상, 11%(65개)가 '미흡'으로 평가

\* '05년은 555개 사업중 84.3%(468개)가 '보통' 이상, 15.7%(87개)는 '미흡' 평가

<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평가등급별 현황 >

	계	우수 (85점이상)	다소우수 (84~70)	보통 (69~50)	미흡 (50점미만)
'05년 평가 (A)	555 (100.0)	28 (5.0)	100 (18.0)	340 (61.3)	87 (15.7)
'06년 평가 (B)	577 (100.0)	30 (5.2)	94 (16.3)	388 (67.2)	65 (11.3)
(B-A)	1,132	0.2	△1.7	5.9	△4.4

(개, %)

③ '미흡' 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은 '07년 예산에서 △52.8% 감액편성

\* 완료사업 제외시 △8.4%

\* '06예산편성시 '미흡' 평가사업은 △12.1% 감액(완료사업 제외시 △8.1%)

< '07년 예산편성시 자율평가결과 예산반영 현황 >

	사업수	06예산(A)	07예산(B)	증 감	
				(B-A)	%
계	577	35.1	34.0	△1.1	△3.1
우수·다소우수	124	4.2	4.4	0.2	5.8
보통	388	29.7	29.0	△0.7	△2.4
미흡	65	1.1	0.5	△0.6	△52.8

(개, 조원)

④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정보를 공개

- '06년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사항을 마련·권고하여 각 부처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원
  - '06.11, 1,383건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각 부처에 통보
    - \* 성과지표 보완 323건, 사업계획 보완 114건, 집행률 제고방안 강구 88건, 사업의 성과달성도 제고 209건 등
- 평가결과를 인터넷\* 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, 국회 예산심의를 지원
  - \* 기획처 홈페이지([www.mpb.go.kr](http://www.mpb.go.kr)) 정책자료란에 게시 : 1.12 현재 약 2,000건 접속

### 3. 심층평가 결과의 활용

- 심층평가는 특정 대상사업에 대해 객관성·전문성이 확보된 외부 전문기관(KDI)을 중심으로 평가 추진
  - 민·관 합동의 『재정사업 평가 자문회의』와 『재정관리점검단』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사업 선정
  - 연구진 및 관련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평가 T/F를 구성 운영
    - \* 평가T/F 팀원 : 평가연구진, 기획처 및 사업담당 부처 담당자 등
  - 평가결과는 당초 계획한 효과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통합·축소·폐지 등 조치
- 3개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'07 예산편성에 반영
  - 사업성과가 미흡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미취업 청년지원사업은 세부사업을 폐지·축소
  -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자활근로사업은 규모를 동결하고, 물가 인상분만 반영하여 예산편성
  - 장기과제(6개)는 평가진행중으로 그 결과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'08 예산편성에 반영 예정
    - '07.1/4분기중 : 평가완료 및 최종보고서 발간 계획

< '06년 심층평가 사업 '07예산 반영현황 >

(억원)

사업명	'05예산	'06예산(A)	'07예산(B)	증감(B-A)
합계	3,853	3,676	3,703	27
①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	738	712	557	△155
② 자활근로사업	2,021	2,337	2,594	257
③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 사업	1,094	627	552	△75

< '06 심층평가 단기과제 평가결과 세부내역 >

과 제 명	활 용 내 용
① 해외마케팅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KOTRA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수출성과 있으나 산자부 사업은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→ 산자부·KOTRA 사업의 통합관리 및 일원화</li> <li>▪ 중기청 사업도 전반적으로 수출성과가 미흡 → 성과가 낮은 개별전시회 사업은 폐지 (‘06) 712→(‘07) 557억원 (△155억원)</li> </ul>
② 자활근로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공률이 미참여자보다 낮아 자활사업 효과 의문시 → ‘07년 자활사업 규모 동결 * (‘06) 2,337→(‘07) 2,594억원 * 지원대상은 ‘06년수준인 7만명으로 동결, 물가상승분만 반영</li> </ul>
③ 미취업청년 취업지원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노동부)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: 취업성과 낮음 → 기업 연수는 확대하고 공공부문 연수는 축소 * (06) 398 → (‘07) 347억원 : 전년대비 △12.8%</li> <li>▪ (중기청)청년 채용 패키지 사업 : 취업성과 낮으나, 중소기업 인력지원차원에서 사업 필요성 인정 * (06) 129 → (‘07) 105억원 : 전년대비 △18.6%</li> </ul>

4. 향후 추진방향

- 성과평가의 예산연계를 강화하여 **‘성과없이 예산없다’**는 인식 확산
- ‘07년은 1/3씩 평가를 해 온 3년차로 전체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므로 재정사업평가제도 정착에 매우 중요
-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틀로 발전

- '07년부터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
  - '07년부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시행되는 정부업무평가에 재정성과부분 점수에 평가결과를 반영
  
- 이를 위해 평가기준의 대표성·객관성·신뢰성 제고 노력 추진
  - 평가항목·기준 등 평가방식의 보완·개선
  - 평가항목 및 기준의 구체화, 평가과정에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
  - 평가대상을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편에 맞추어 평가단위 재설정
  
- 사업별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노력도 강화
  - KDI·조세연 등 연구기관과 성과관리자문단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
  -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재정운용상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은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

## < 참고 1 >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개요

### □ 부처별로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1/3씩 자율 평가

- 기획예산처가 사업별 평가항목과 평가지침을 사전 제시  
→ 각 부처 자율 평가 → 기획처가 평가결과 점검
- 평가항목은 15개 공통 질문 + 사업유형별로 1~3개 추가 질문

\* 사업유형 : SOC, 출자·출연, 용자, 민간보조, 지자체보조 등

< 15개 공통질문 >		(가중치)
<b>계 획</b> (30)	1-1.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?	3.75
	1-2.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?	3.75
	1-3. 다른사업과 중복·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가?	3.75
	1-4.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?	3.75
<b>성 과 계 획</b> (15)	1-5. 성과목표/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?	5.0
	1-6. 성과목표/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?	5.0
	1-7.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?	5.0
<b>집 행</b> (20)	2-1.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?	5.0
	2-2.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?	5.0
	2-3.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?	5.0
	2-4.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?	5.0
<b>성 과</b> (50)	3-1.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?	5.0
	3-2.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?	30.0
	3-3.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?	10.0
	3-4. 평가결과를 사업계획·방식의 보완·변경 등에 활용하였는가?	5.0

- 기획처는 사전에 항목별 질문에 대한 답변기준을 제시
- 부처는 항목별로 “예 / 아니오”로 답변, “예”라고 답변시 근거제시  
\* 단, 성과달성도, 고객만족도 항목은 4등급으로 나누어 답변
- 항목별 평가결과를 종합점수화하여 사업별로 4단계로 등급화
  - 우수 / 다소우수 / 보통 / 미흡  
(85점이상) (84~70점) (69~50점) (50점미만)

## 〈 참고 2 〉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예산편성 활용 사례

### □ 평가결과 ‘미흡’ 으로 예산감액한 사례

(억원)

사업명	‘06예산	‘07예산	증감	주요 평가내용
관광지개발	331	286	△45	‘05년 성과목표 미달성 * (목표) 415개소 지원 → (실적) 400개 지자체 실집행 부진 (15.3%)
남해안관광벨트	87	52	△35	지자체 사업여건 검토 및 반영 미흡 예산집행률이 57%수준으로 저조
전력시장경쟁촉진사업	47	32	△15	사업목적의 재검토 필요 출연기관 경영상황·수지 등 분석 미흡 홍보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81%로 저조
우수공공체육시설선정지원	14	-	△14	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낮음 모니터링 등 집행관리 미흡
직거래매취지원	500	390	△110	수매지원사업 등 여타 사업과 중복 모니터링체계가 미흡
양식어업기자재	50	35	△15	‘05년 성과목표 미달성 * (목표) 30억원 구입비지원 → (실적) 28억원 모니터링 미실시, 집행률 93%로 부진

### □ 평가결과 ‘우수’ 로 예산을 증액한 사례

(억원)

사업명	‘06예산	‘07예산	증감	성과목표 달성 실적
수리시설안전진단	97	160	63	(목표) 안전진단을 42.0% → (실적) 42.2%
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	68	84	16	(목표) 농촌관광매출액 105억원 → (실적) 111억원
기술혁신형선도기업육성	25	30	5	(목표) 세계최고대비 이노비즈(Inno-Biz) 기술수준 79% → (실적) 80.1%
농업인정보화교육	25	31	6	(목표) 교육 54,350명 → (실적) 61,230명